예수님 믿기와 예수님 추구하기

(잠언 8:1~36)

22.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23.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24.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25.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26.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27.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28.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 있게 하시며
29.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30.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31.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 믿기와 예수님 추구하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예수님 믿기와 예수님 추구하기'
믿음과 추구하는 것의 관계가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추구함은 특정한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추구할 수 없습니다. 또 특정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추구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추구함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큰 오해는 바로 종교가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를 믿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야말로 보편적 오해입니다. 종교는 믿음의 문제가 아닌 추구함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크기의 마음 공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힌두교를 믿든지 라마 불교를 믿든지 필리핀 오지의 원주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 채워질 수 있는 마음의 공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될 자리인 이 마음의 공백을 영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을 채우기 위한 추구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입니다. 이 공백이 채워져야 기쁨과 만족함으로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종교가 추구함에 관계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추구함의 대상을 무엇으로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관계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대상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크기로 비어있는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대상을 참 기쁨과 만족과 보람과 행복의 근거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러한 믿음과 추구함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은 곧 에덴동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의 문제가 결코 등한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마음이 비어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를 추구할 것을 당부합니다.
지혜를 의인화해서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지혜가 사람들을 초청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어서 지혜의 속성이 나타납니다. 이 의인화 된 지혜는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언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지혜를 추구하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믿음과 추구함의 대상이 다를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내게 돈을 추구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지만 내가 자연스럽게 돈을 추구하는 이유는 돈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형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자녀의 형통을 추구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지만 자연스레 자녀의 형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그것을 통해 마음이 채워지고 만족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했기에 믿습니다. 내 마음의 채움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수적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믿게 되었으면 추구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돈 건강 형통 등과 같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믿음과 추구함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추구하는 것을 믿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동안 예수님은 종교에 속해버리고 맙니다. 종교는 추구함을 위한 방편입니다. 사람들은 믿는 것을 잘 얻고 많이 얻기 위해서 종교를 의지합니다. 반면에 믿음은 이에 앞서 추구할 대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믿는 자가 예수님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순입니다. 돈을 믿는 사람이 돈을 추구하는 방편으로 불상 앞에 절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기쁨과 만족의 원천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추구함의 방편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믿고 추구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라고 하였습니다.
은을 믿어서 은을 추구하게 되면 훈계를 얻지 못합니다. 이 지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추구하라는 의미합니다. 이 지혜가 은보다 낫기 때문에 지혜를 믿고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지혜의 속성 중의 하나입니다. 금보다 더 나은 지혜를 믿고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을 보면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원하는 모든 것’은 이 세상에서 추구할 수 있는 모든 것들보다도 지혜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과 추구함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이 믿음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세상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대상을 믿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추구함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분명하다면 예수님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이 추구의 방법을 본문이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은 지혜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속성을 살펴봄으로서 바른 추구의 방법도 알 수 있습니다.
22절부터 살펴봅니다. 먼저 선재성(先在性)이 나타납니다.
‘선재성’이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계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지혜 되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속성입니다. 두 번째 속성은 이 세상의 창조사역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창조의 당사자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과 기쁨의 관계임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로는 지혜 되신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에 포함되고 참여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속성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추구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지혜의 선재성입니다.
창조 전부터 예수님이 선재하셨음이 믿음과 추구에 어떠한 관련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는 곧 존재의 순서를 따라 마음을 움직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움직임에는 순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존재의 순서를 따라 장유유서(長幼有序)가 적용되어야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이 사실보다도 우선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존재의 장유유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선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장유유서’는 나이 많은 사

람을 우대함으로서 질서가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먼저 질서부터 잡으라는 것이 믿음과 추구함의 문제에도 적용됩니다. 내게 생겨난 문제의 순위가 몇 등인지 정해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벌어진 문제들보다 선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만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자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선재성은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믿음으로써 추구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추구하게 되면 나머지 세 가지 속성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선재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장유유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지혜의 두 번째 속성으로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30절을 보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라고 하였습니다.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당사자로써 참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피조세계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추구하는 방식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먼저 존재의 장유유서를 따라 예수님을 인정하되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하였습니다. 공생애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로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지혜의 속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사랑으로 관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관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수님과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연합이 이루어지는 지점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공생애의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시고 육신이 되신 지혜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우선으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자리에서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결합함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맺고 계신 사랑과 기쁨의 관계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추구함의 답입니다.

예를 들어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돈 문제나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회사에서 승진이 안 될 수 있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재성을 염두에 두고 이 모든 문제보다도 먼저 계셨던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가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답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답이

있음을 믿고 추구할 때에 부활승천하신 주님 따라 나의 마음을 하늘로 이끄셔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나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판단이 임하게 됩니다. 내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추구함으로써 답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참여하고 있을 때에,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과 판단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31절을 보면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 인간이 참여하게 됨을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과 상통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8장은 요한복음의 서문을 앞서서 구약적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것은 믿는 것을 넘어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롭다는 것입니다.

이 추구함은 예수님을 먼저 기억함으로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장소는 십자가뿐이기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 모든 문제에 대한 답들이 그곳에 존재합니다. 문제 앞에서 먼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만족과 기쁨이 주어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문제에 대한 판단을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진실인지는 해보시면 압니다.

이러한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한 신앙의 상식을 하나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라고 하였고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로 일컫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선재하시는 말씀으로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은 곧 속에 있는 판단과 생각이 언어로써 바깥으로 드러난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7절에서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생각하실 수 있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생각과 판단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바깥에 계신 존재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판단과 생각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뜻과 생각을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이 임하고 표출되는 곳이 세상 어디도 아닌 오

직 예수님 한 분뿐이셨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활동은 창조사역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바다가 있으라'고 명하셨을 때에 그 판단과 생각이 예수님을 통해 표현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 피조세계 안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오직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판단만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에게 생각과 판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를 향해 갖고 계신 모든 생각과 판단이 예수님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바깥으로는 단 하나의 생각조차 흘러나가질 않았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은 예수님을 통과해서 표현되었고 다른 모든 피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과 판단을 완전히 받아들이시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시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말씀을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말했던 것이고 오늘 잠언의 본문은 그것을 구약적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가 그 사건을 기억하게끔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돈 문제가 생겼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이 성령이시며, 또한 아버지 안에 들어와 계신 아들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로 마주보고 계십니다.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나올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도 나옵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은 주님이 아버지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면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주목하시듯이 우리도 예수님만 주목하고 사랑하게 하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은 예수님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을 통해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고, 아버지로부터 오는 성령을 통해 예수님만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께 주목해야 함을 지혜를 추구하라는 내용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의 장유유서를 따라서 선재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

떤 대상 앞에서도 마음은 십자가 예수님을 우선하여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고백을 할 수 있을 때에, 세상에서 생겨난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답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돈이나 부흥을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추구하는 것들을 믿고 있을 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는 상황들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연합함으로써 이 세상에 대해 죽은 자가 되어서 그 뒤로 이어지는 생각지도 못할 은총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